

【우리 시의 향기】

# 이육사의 시 「파초(芭蕉)」

— 이덧 타는 입술을 축여 주렴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시의 어법과 해석

시인 이육사의 시 가운데 그리 널리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 그 시작의 짜임새와 시적 긴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작품으로 「파초(芭蕉)」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이육사의 후기작에 속하며, 일본이 황민화 운동을 내세워 국문 말살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1941년 12월 잡지 『춘추(春秋)』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육사가 세상을 떠난 후 해방과 함께 출간된 『육사시집(陸史詩集)』(서울출판사, 1946)에 수록되었다.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이 되고 있는 ‘파초’는 계절의 호사스러움을 모두 잃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초’에게는 과거의 풍요로움이 추억으로만 존재한다. 바로 이같은 이유로 인하여 시적 대상과 자아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조우한다. 시적 주체와 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이 시는 주관적인 정조(情操)의 감상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정황의 극복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이 필자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두 개의 시어 때문이다. 하나는 제2연의 ‘파초(芭蕉) 너의 푸른 옷깃을 들어/이덧 타는 입술을 축여 주렴’에

나와 있는 ‘이닷’이라는 시어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연 ‘그리고 새벽 하늘에 어데 무지개 서면/무지개 밟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세’에서 볼 수 있는 ‘어데’라는 시어이다. 이 두 개의 시어는 모두 일상적인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방언의 일종이다. 그 시적 변용이 자못 흥미롭다. 우선 작품의 전문을 먼저 보기로 하자.

항상 앓는 나의 숨결이 오늘은  
해월(海月)처럼 게을러 은(銀)빛 물결에 뜨나니

파초(芭蕉) 너의 푸른 옷깃을 들어  
이닷 타는 입술을 축여 주렴

그 옛적 사라센의 마지막 날엔  
기약(期約)없이 흩어진 두날 닳아있어라

젊은 여인들의 잡아 못논 소매끝엔  
고은 손금조차 아직 꿈을 짜는데

먼 성좌(星座)와 새로운 꽃들을 볼 때마다  
잇었던 계절을 몇번 눈위에 그렸느뇨

차라리 천년(千年) 뒤 이 가을밤 나와 함께  
빛소리는 얼마나 긴가 재어보자

그리고 새벽 하늘에 어데 무지개 서면  
무지개 밟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세

(『육사시집』, 49-50면)

먼저 ‘이닷’이라는 시어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은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말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 뜻도 불분명하다. 『춘추(春秋)』지의 발표 당시 원문에도, 그리고 첫 시집에서도 ‘이닷’이라는 표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표기상의 오류라고 말하기 어렵다.

파초(芭蕉) 너의 푸른 옷깃을 들어  
이닷 타는 입술을 축여주렴

위의 시구의 통사적 구조로 본다면, ‘이닷’은 (1) ‘타는’이라는 동사를 한정하는 말, (2) ‘입술’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말, (3) ‘축여 주렴’이라는 동사를 한정하는 말 등으로 그 기능과 속성을 따져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닷’의 의미를 모르거는 이 세 가지 경우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낼 수 없는 일이다.

‘이닷’의 형태론적인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가 생각해낸 말이 ‘그닷(그닷)’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예1) 사십 리 길이라더니, 그닷 멀지 않구나.

(예2) 값은 비싼데, 물색이 그닷 고와 보이지 않네.

여기서 ‘그닷’은 비교 또는 상태를 말해 주는 ‘그다지’의 준말이며 ‘그렇게’라는 뜻을 가진다. 일상적인 회화에서는 ‘그다지’보다는 ‘그닷(그닷)’이라는 준말이 더 많이 쓰인다. ‘그닷’이라는 말은 전제되는 상황 또는 조건에 반하는 부정적 진술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그닷 ---하지 않다’라는 형태로 사용된다.

이같은 ‘그닷’의 쓰임을 놓고 보면, ‘이닷’이라는 말이 ‘이다지’의 준말일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다지’는 ‘이렇게’의 뜻으로 사용되는 부사로서, 역시 비교 또는 상태의 제시를 말해 준다. 그러나 ‘그닷’과는 달리 이 말은 강한

긍정 또는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 위의 시구에서는 ‘이렇게 타는 입술을 축여 주렴’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로 본다면, ‘이닷’은 ‘타는’을 한정하는 부사임에 틀림없다.

이제 두 번째의 시어인 ‘어데’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육사의 여러 시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말은 그 쓰임이 매우 특이하다.

그리고 새벽 하늘에 어데 무지개 서면  
 무지개 밟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세

위의 시구에서 ‘어데’는 장소를 말해 주는 지시대명사로서 ‘어디’ 또는 ‘어딘가에’ 정도로 쉽게 풀이된다. 그런데 이 말은 경상도 방언에서 특히 장소를 말하는 지시대명사로서의 기능보다는 진술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는 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드러내는 미묘한 어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시적 진술의 의미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육사의 시 가운데 ‘어데’라는 시어가 사용되고 있는 작품들을 찾아 그 쓰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막힐 마음 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느뇨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드리느라

「자야곡(子夜曲)」(시집, 40면)

(2)

높대보다 높다란 어깨  
 얇은 구름쪽 거미줄 가려  
 파도나 바람을 귀밑에 듣네

갈매긴양 떠도는 심사  
어데 하난들 끝 간 텔 알리  
 으뜻한 사념(思念)을 기폭(旗幅)에 흘리네

「독백(獨白)」(시집, 56면)

(3)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광야(曠野)」(시집, 65면)

앞의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데’라는 말은 ‘어디’라는 장소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시대명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의미상으로 뒤에 이어지는 서술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는 한정적 기능이 더욱 잘 드러난다. 예컨대, (1)의 경우 ‘강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 진술 속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에서도 ‘끝 간 텔 알 수 없다’는 부정의 의미가 더 두드러진다. 물론 앞의 시 「파초」의 경우 ‘새벽 하늘에 어데 무지개 서면’에서는 분명 지시대명사로서의 역할이 크다. 그러므로 그 의미도 ‘새벽 하늘에 어딘가에 무지개가 선다면’ 정도로까지 풀이하여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시적 진술 자체에 내용에 대한 일종의 판단 유보와 같은 의미가 정의적으로 곁들여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앞의 (1) (2) (3)과 동일한 맥락 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데’라는 말의 시

어로서 활용 방법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시와 초극 의지

이육사의 시를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시를 통한 주체의 재정립과 자기 확인의 과정을 철저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던 시인의 정신이다. 그에게 있어서 주체의 확립과 그 인식은 자아의식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로서의 자아와 대상으로서의 현실이 함께 포괄되고 있다. 그의 시 세계가 정신적인 자기 확립의 단계에 들어설 무렵에 이루어진 「노정기(路程記)」와 같은 작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올랐다.

항상 흐렸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앓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내  
다 삭아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머나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삶의 과정에 대한 고통스런 회고를 담고 있는 이 시에서 시적 자아와 대상으로서의 현실은 '깨여진 배조각'을 통해 암시되고 있는 표랑의 바다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기에 제2연에서의 '서해로 밀항하는 짱크'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상징적 제시에 해당된다. 이 시에서 그러지고 있는 삶의 현실은 '항상 흐릿한 밤'의 어두움이 그 전부를 이룬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나아가야 하는 고통스런 노정에는 '지평선'도 결코 행복한 목표가 되지 못한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으로 표상되고 있는 '나'의 삶이 끝내 어둠과 고난을 함께 살아가는 행위로 결론지어지고 있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 파악될 수 밖에 없다.

이육사의 시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나'의 문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시대의식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이러한 시적 자아의 확립을 위해 이육사는 현실이 강요하는 모든 고통은 정신적 의지로 극복하고 또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에 저항하고 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자기 인식의 방법은 그의 행동에의 의지로 인하여 삶의 현실 속에 더욱 절실하게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끝내 버리지 않았으며 북경의 감옥에서 목숨을 거두게 될 때까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육사에 있어서 그 저항적 행동은 개인적 의지의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현실을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민족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식민지 시대의 모든 현실적 조건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육사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절정」과 같은 시를 보면, 대상으로서의 현실과 시적 주체로서의 자아 사이에 치열한 대립 관계가 형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적 자아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은 상황의 극한에 도달하여 있기 때문에 한 발도 달리 옮겨 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이같이 자기 생존의 가능성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였을 때에 시적 주체에게는 일체의 행위가 거부된다. 오직 내적인 통찰을 통하여 자기 존재의 확인만이 가능하다. 여기서의 자기 확인이란 절박한 상황을 위기 인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기 초월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비극적인 절정의 순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자기 존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질문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 그의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정신의 초연성이 이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육사의 시에서 널리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인식과 그 초월적 정신은 그가 보여준 현실에서의 실천적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가 그려내고 있는 시적 정황은 일상적인 현실 체험의 공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에 가까운 고결한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시 정신은 이 시기의 다른 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절제와 균형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시적 자아가 자리잡고 있는 그 정신의 의연함을 고절의식(孤絶意識)이란 말로 흔히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경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시들은 현실에 대한 요구보다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노래함으로써 정신적 초월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인 이육사가 식민지 현실에서 시를 통해 도달할 수 있었던 자기 확인의 과정은 결국 고통의 현실에 대한 정신적 초월의 의지로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